

볍기리 요지 복원.정비를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
결과보고서



일본 소재 이라보다완과 볽기리 출토 사금파리



양산사발 볽기리출토 사금파리

2017년 11월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목 차

I. 사업개요	2
II. 법기리 요지의 역사적 가치	3
III. 용역 구체적 시행과정	4
IV. 심포지엄 시간 계획	5
V. 발표자 약력 및 최종 원고	6
1. 발표자 약력	6
2. 고려다완과 법기리 요지 - 다니 아키라	7
3. 법기리 찻사발 - 신한균	17
4. 도요지 발굴사례를 통한 도자문화컨텐츠개발 -장기덕 ...	34
VI. 질의, 응답	50
VII. 주최기관장 양산시장의 반응 및 행사 사진	52
VIII. 보고서를 마치며	54

I. 사업개요

● 사업명 : 법기리요지 정비·복원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

● 사업 경위

경상남도 양산시에서는 1963년 사적 제100호로 지정되어 있는 양산 법기리요지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도록 (사)한국언론정보학회에 의뢰하였다.

● 목적 및 기대효과

법기리 요지에 대한 복원정비를 위해 도자사, 미술사, 도자연구사(도예가)로 구성된 학술발표대회를 실시함으로써 법기리 요지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우선 법기도자기의 실체에 접근하여 그 가치나 의미를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다. 심포지엄은 일회성이 아니라 몇 회에 걸친 사업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것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명확한 역사적 근거에 의한 가마터를 발굴하는 것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기초로 한 자료관(미술관 혹은 박물관) 건립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 도자연구자들의 관심에 편승한 일본인의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 분명하며, 일본인 관련 관광 사업과의 연계 효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법기도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낸다면 양산은 새로운 도자기의 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뢰기관 : 양산시

● 연구원 구성

책임연구원 : 문종대(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 기획 및 총괄

연구원 : 박선미(신문방송학 박사)

- 발제자 관리 등 세부 사항

II. 법기리 요지의 역사적 가치 - 연구의 당위성(배경)

- 양산은 경남 동남권 중심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인구가 30만을 돌파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어나가고 있음.
- 반대로 양산은 조선시대 중기 최대 도요지가 밀집되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현황조사 파악이 이루어져있지 못함.
- 또한 사적 100호 지정되어 있는 법기리 요지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술연구가 이루어져있지 못함.
- 이와 같은 연구용역 및 학술대회를 추진한 바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양산 도자사에 대한 연구 집성 및 취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임.
- 따라서 이번에 학술용역 및 학술대회를 추진하여 법기리 요지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연구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집성하여 법기리 요지의 복원정비계획에 활용하고자 함.

III. 용역 구체적 시행과정표

일자 공정별	8.16	9.18	11.16	11.30	비 고
발표자 선정	0				
원고요청	0				
원고취합 및 자료제작		0			
학술대회			0		
보고서 납품				0	

IV. 심포지엄 시간 계획

- ◆ : 2017년 11월16일 (목) 16:30 - 19:00
- ◆ 장소 :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순번	순서	시간		내용
1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16:30 - 16:35	(5분)	사회자
2	환영사	16:40까지	(3분)	송영철 법기리요지복원추진위원회 위 원장
3	축사 3명	17:00까지	(각 5분 내외)	나동연 양산시장 서형수 국회의원 윤영석 국회의원
4	발표자 간략소개	17:05까지	(3분)	다니아키라-노무라미술관장,일본다도 문화학회장, 예술학 박사 신한균-도예가,작가 장기덕-도예가,도자학 박사 -자세한 약력은 유인물 참조
5	주제발표	18:35까지	(각30분 내외)	다니아키라-고려다완과 법기리요 신한균 - 법기리 차사발 장기덕 -도요지 발굴, 복원 사례를 통한 도자문화컨텐츠 개발
6	질의응답	18:55까지	(20분)	발표자, 참가자 등
7	폐회	19:00-		종료 및 기념촬영

V. 발표자 약력 및 최종 원고

1. 발표자 약력

아키라

문학부 사학과 졸업. 교토여자대학, 도시샤대학교 강사,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객원교수 역임. 예술학 박사이며 일본 차회기의 권위자. 현재 노무라미술관 관장, 심차회 이사, 일본다도문화학회 회장. 저서로 『차회기의 풍경』, 『차회기 연구』, 『고려다완』, 『차인들의 일본문화사』 등 다수가 있다.

신한균

- 한국전통사발 선구자 고 신정희의 장남. 대한민국미술대(국전)심사위원 역임. 세계 유명화랑에서 60여 회의 초대전. 저서에 『우리사발이야기』, 역사소설 『신의그릇1.2』, 일본에서는 『井戸茶碗의 비밀』, 『高麗茶碗』, 『神の器1.2』, 다니 아키라 박사와 공저 『사발』 등 다수. 현재 신정희요에서 작업 중

장기덕

- 도자예술학 박사(도자조형). 경남 최고장인. 현재 청봉요 / 밀양도예문화 Center 대표. 한국茶.陶문화연구소 대표. 동아대학교 외래교수

(아키라 발제 원문)

2. 高麗茶碗と法起里窯

谷 晃(日本 野村美術館館長)

本日はこのシンポジウムにお招きいただき、発表する機会を与えていただいたことをとても感謝しています。私はこれまで20年以上にわたり高麗茶碗の調査を続けてきました。その調査方法には以下の4つの柱があります。

- ①韓国における窯址の調査
- ②日本における伝世品の調査
- ③日本における遺蹟からの発掘品の調査
- ④日本における茶会記を中心とした文献の調査

これら4つの方法で調査を続けてきた結果、高麗茶碗についてかなりわかってきたことありますが、あいかわらずわからないまま現在に至っていることもたくさんあります。そのうちこれまでにわかってきたことの概略をこれからご紹介します。

日本の茶文化の一つである「茶の湯」においては、韓半島産の碗類が16世紀中ごろから現在にいたるまでずっと使い続けられ、また愛されてきました。それらは「高麗茶碗」と称され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高麗」の名称を付けていてもそれらは高麗王朝時代に生産されたものではなく、いずれも朝鮮王朝時代になってから生産された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ます。ではなぜ「高麗」の名称を付けたのかとといえば、日本では韓半島産の文物をその生産時期にかかわらず「高麗物」と称する習慣があったことによります。これは中国産の文物を、唐王朝ではなく宋や元、あるいは明や清王朝などの時期に生産されたものであっても「唐物」と称することと共通しています。

また一口に高麗茶碗といってもその内容は多様で、技法的には青磁・白磁・白磁青画・粉青などさまざまです。また産地も現在の北朝鮮の北部で生産された推定されるものもあり、中部の鷄竜山系窯、あるいは半島南部の海岸近くで生産されたものも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数量的には慶尚南道南部の海岸近くで生産されたものが多いと考えられています。

さらに高麗茶碗が生産された時期は、先に朝鮮王朝時代であるといいましたが、じつは朝鮮王朝の初めから終りまでを通じてではなく、おおむね1500年前後から1700年前後にかけてのほぼ200年間で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1500年前後というのは日本で茶の湯が成立する時期にあたり、1700年前後というのは、日本の対馬藩が釜山の地において経営していた倭館の中に築かれた窯が生産を停止した時期にあたります。このほぼ200年の間より以前、つまり1500年以前、あるいは以後、つまり1700年以降には韓半島産の陶磁器が日本へ輸入されたとしてもごくわずかであろうと考えられています。

ただ1500年頃から1700年頃までの生産量がいつの時期にもずっと同じであったかといえば、1500年代は少なく、1600年代後半はかなり多い

という傾向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それは200年間にわたって生産された高麗茶碗が、その間ずっと同一の生産状況であったかといえばそうではなく、その生産状況は次のように大きく三期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と私は考えているからです。

すなわち200年間のうちの前期は、韓半島の各地で周辺の民衆の生活用具を中心に従来より生産していた「従来窯」時代、中期はそれらとは性格を異にした特別な窯で日本向けの茶碗を生産したであろう「借用窯」時代、そして後期を倭館内に設けられ対馬藩の管理のもとに生産した「倭館窯」時代であり、それぞれの窯は次のような性格を有していたと考えられます。

従来窯 茶の湯が確立する以前から、またそれ以後も韓半島において周辺の民衆が使用する陶磁器の生産を続けていた窯。ここで作られた碗類の一部が日本へ運ばれ、高麗茶碗として茶の湯で使用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らの窯は韓半島南部の広い地域にまたがり、これらの窯における陶磁器生産に対して日本人の直接的な関与はなかったと考えられます。これら前期の“従来窯”で生産された碗類が日本へ運ばれたのは日本で茶の湯が成立する1500年前後から、中期の“借用窯”で碗類の生産が始まる1570年ころまでのおおよそ70年間と私は考えていますが、現在日本に伝わる高麗茶碗から判断すると、この時期に生産され日本へ持ち込まれた数量はそれほど多くないと判断できます。

借用窯 従来窯の窯の一部または全部を一時的に借用して、日本向けの碗類を生産していた窯。ここでは最初から日本の茶の湯に使用されることを念頭においてできるだけその好みに合うように作られました。借用窯を操業するにあたっては日本人またはその意向を受けた韓国人が関与し、韓国人の沙器匠が従事していたと考えられます。

借用窯の始まりは1570年ころと推定していますが、その根拠は日本の消費地遺跡である摂津有岡城遺跡（現在の兵庫県伊丹市）から、韓半島の従来窯では生産していなかった日本で「彫三島」と称するタイプの陶片が出土し、かつその碗は1579年以前と考えられる層から出土していることによります。

また借用窯での生産終了時期は倭館外で陶磁器の生産が始まる1639年であると私は考えています。ただし豊臣秀吉による韓半島への侵攻（壬申倭乱）が1592年に始まってから争乱終結後しばらくは韓日間の関係は断絶状態が続き、1609年に己酉約条が締結されて朝鮮王朝と対馬藩との交易が回復されてもすぐには日本向けの陶磁器生産が開始されたとは考えにくいのです。そのため1590年ころから1620年ころまでのほぼ30年間は借用窯が操業を中断していたとみなし、それより以前の1570年ころから豊臣秀吉による韓半島への侵攻が始まる1590年ころまでを前期借用窯、1620年ころから倭館外で陶磁器生産が始まる1640年ころまでを後期借用窯と呼ぶことにします。

倭館窯 対馬藩が経営する倭館内に築かれた窯です。対馬藩はその窯を運営するために窯師や沙器匠など20人ほどを派遣していたものの、陶工頭の指示を受けて実際に茶碗作りに従事したのは韓国人の沙器匠でした。

この倭館窯も前期と後期に分けることができ、豆毛浦倭館の内部で窯が操業を始めた1640年ころから1678年に草梁の地に倭館が移転するまでを前期の旧館期倭館窯、1678年から草梁の地に移り、以後1718年に閉窯するまでを後期の新館期倭館窯と称することとします。新館期倭館窯の操業については泉澄一氏の詳細な研究によりほぼ全容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が、旧館期

倭館窯の操業の様子については文献史料が乏しく、また窯跡の発掘調査も行われておらず、はっきりしたことはわかっていません。ただし生産量では圧倒的に新館期倭館窯が多かったであろうと推定され、現在日本に伝世している高麗茶碗の多くは前期または後期の倭館窯で生産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ます。

ところで今日このシンポジウムが行われています法起里窯は、日本で今なお使われている高麗茶碗と強い関係があります。法起里窯は私のいう“従来窯”として、古くから陶磁器生産を行っていた、それもかなり大規模な窯であったことがわかっています。私もこの窯址は二十年ほど以前に尹龍二先生に案内いただいて訪れたことがあり、それ以後も何度か訪れたことがありますが、その時はまだ法起里窯が高麗茶碗にとって重要な窯であることが認識できずにいました。ところが十年ほど前に申翰均先生から法起里窯から高麗茶碗が出ていると連絡を受け、駆けつけてみると従来窯で生産されていた碗類とは明らかに異なり、黄伊羅保・三つ足割高台・鉄絵茶碗・御本三島茶碗などを生産していたことが表面採集資料から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法起里窯は倭館窯とは場所が異なり、またそれら表面採集資料からは従来窯と異なるタイプの碗類を生産し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ので、とりあえずは法起里窯は私の分類でいう借用窯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と判断しています。ただし借用窯の前期、後期ともに法起里窯が高麗茶碗の生産を続けていたかどうかにについては、この窯の発掘調査をまたなければはっきりしたことはいえません。私は前期には法起里窯とは別の借用窯が存在したのではないかと、それは『辺例集要』にも書かれている金海周辺に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現在の金海市近辺の窯跡を調査したものの、それらしき窯を見出す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もっともかつての金海府は、現在の金海市の範囲よりずっと広がったとされるので、別の場所に「金海の前期借用窯」が存在していた可能性も捨てきれません。

さらには旧館期倭館窯が操業を始めてからも、倭館窯の下請的な窯として高麗茶碗を生産し、倭館窯へ製品を納めていた可能性も考えられるでしょう。いずれにしてもここ法起里窯が高麗茶碗にとって大変に重要な窯であ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ただ残念なことにこれまではまったく学術的な発掘調査が行われていません。このまま放置し続けられれば窯址の破壊が進み、発掘したとしてもさほどの収穫が得られなくなってしまう心配があります。

法起里窯の発掘調査が行われれば、高麗茶碗だけに限らず、韓国の陶磁器研究に大きく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一日も早く発掘調査が実現することを願ってやみません。

高麗茶碗に関する略年表

高麗茶碗関連		窯の状況					
		補足					
一五〇六	高麗茶碗文献初見	民間人が使うためのやきものを焼いていた民窯で高麗茶碗が作られた					
一五一〇	三浦の乱						
一五三三	茶会記始まる						
一五三七	高麗茶碗茶会記初見 〔『松屋会記』〕						
一五五〇	この頃より高麗茶碗使用率増大						
一五七〇頃	日本向け茶碗の生産始まる						
一五九二	秀吉の朝鮮侵攻始まる						
一六〇三	影島に仮倭館設置						
一六〇九	己酉約条締結、国交回復						
一六三九	豆毛浦倭館外に築窯						
一六四四	豆毛浦倭館内に築窯	後期借用窯					
一六七八	草梁倭館へ移転 大規模なやきもの生産始まる	倭館窯古館期					
一七二八	倭館窯生産停止	倭館窯新館期					
1720		1680	1640	1620	1590	1570	
		従来窯時代		前期借用窯		後期借用窯	
		倭館窯は一六七八年に移転したため、移転前の豆毛浦での生産期間を古館期、草梁での生産期間を新館期とする		倭館に窯を築く前は、従来からある民窯や地方官窯を借りて、一時的に日本向けのやきものを焼いていたのではないか			

高麗茶碗に関する略年表

(다니 아키라 발제문 번역문)

고려다완과 법기리 가마 高麗茶碗と法基里窯

다니 아키라(谷晁 일본 노무라 미술관장)

법기리 도요지 복원을 위한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이상 고려다완 연구 조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먼저 저의 조사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① 한국의 가마터 조사
- ② 일본의 전세품(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물건) 조사
- ③ 일본의 유적에서 발굴되는 물건 조사
- ④ 일본의 차회기(茶會記 일본 다도를 실행한 기록. 차회에 참석한 인물로부터 사용된 차사발, 차통, 나온 음식 등 매우 세밀하게 정리)를 중심으로 한 문헌 조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 온 결과 고려다완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알게 된 지금까지의 사실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중요 차문화인 ‘다도’(일본어로 茶の湯차노유)에서는 한반도에서 만든 사발들을 16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또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고려다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고려 왕조 시대에 생산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 조선 시대에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고려’라는 명칭을 붙였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한반도의 문물을 그 생산 시기에 관계없이 ‘高麗物고려물건’이라고 칭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문물도 당나라의 것이 아니라 송이나 원, 혹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 생산된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唐物 당나라 물건’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 한마디로 고려다완이라 하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복잡하며 기법적으로도 청자·백자·청화백자·분청 등 다양합니다. 또 생산지도 현재의 북한 북부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고, 중부 계룡산 계통의 가마, 또는 반도 남부 해안 근처에서 생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량적으로는 경상남도 남부 해안 근처에서 생산된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다완이 생산된 시기는 앞에서 조선 왕조 시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선 왕조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쭉 생산된 것이 아니라 대체로 1500년 전후부터 1700년 전후에 걸친 약 200년간이라고 생각됩니다. 1500년 전후는 일본에서 다도가 성립하는 시기이며, 1700년 전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본의 대마도 번이 부산에서 운영하던 왜관 안에 축조했던 가마에서 많은 사발을 생산했고 1718년에 생산을 정지한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 200년보다 이전인 1500년 이전 또는 이후인 1700년 이후에는 한반도산 도자기가 일본으로 수입되었다고 해도 극히 적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0년경부터 1700년경까지 생산량이 줄곧 비슷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1500년대는 보다 적었고 1600년대 후반은 꽤 많았다는 경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0년간에 걸쳐 고려다완이 생산되었지만 그동안 계속 동일한 생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생산 상황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년간 중, 전기는 한반도 각지에서 일반 민중의 생활 용구를 중심으로 예전부터 생산하던 ‘종래요從來窯’ 시대, 중기는 그것들과는 성격을 달리한 특별한 가마에서 일본 취향 다완을 생산했을 ‘차용요借用窯’시대, 그리고 후기는 왜관 내에 설치되어 대마도주의 관리 하에서 생산한 ‘왜관요倭館窯’시대입니다. 각각의 가마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종래요從來窯

차노유, 즉 일본다도가 확립하기 이전부터 혹은 이후에도 한반도에 살던 일반 민중이 사용하는 도자기를 생산해 온 가마를 말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사발의 일부가 일본으로 옮겨가 고려다완으로 다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의 가마는 한반도 남부의 넓은 지역에 걸쳐 있으며 이들 가마에서 생산하는 도자기에 대해서는 일본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들 ‘종래요’에서 생산된 사발류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은 일본에서

다도가 성립하는 1500년 전후부터 중기의 ‘차용요’가마에서 사발류의 생산이 시작된 1570년경까지의 약 70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본에 건너와 있는 고려다완으로 판단하면 이 시기에 생산되어 일본으로 반출된 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요借用窯

종래요의 가마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빌려 일본 취향 사발류를 생산했던 가마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일본 다도에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다도의 철학이나 취향에 맞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차용요’ 가마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일본인 또는 그 의도를 제대로 받아들인 조선인이 관여했고 조선 사기 장인이 종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차용요’의 시작은 157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일본의 셋쓰 아리오카성摂津有岡城 유적(현재 효고현 이타미시兵庫縣伊丹市)에서 한반도의 종래요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일본에서 ‘호리미시마彫三島’라고 부르는 타입의 도편이 출토되었는데 그 사발은 1579년 이전으로 여겨지는 층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차용요’의 생산 종료 시점은 왜관 밖에서 도자기 생산이 시작된 1639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반도를 침공(임진왜란壬辰倭亂)했던 1592년부터 전란 종료 후 얼마 동안 한일 관계는 단절 상태가 이어졌고, 1609년에 기유약조가 체결되어 조선과 대마도 번과의 교역이 회복되었지만 곧바로 일본 취향의 도자기 생산이 개시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590년경부터 1620년경까지 거의 30년간은 차용요 조업이 중단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저는 그보다 이전인 1570년경부터 임진왜란이 시작된 1590년경까지를 ‘전기 차용요前期借用窯’, 1620년경부터 왜관에서 도자기 생산이 시작된 1640년경까지를 ‘후기 차용요後期借用窯’라 부르기로 합니다.

왜관요倭館窯

부산의 왜관 내에 축조되어 대마도번이 경영했던 가마를 말합니다. 대마도 번은 그 가마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공두(도공의 우두머리)와 사기 장인 등 20명 정도를 파견했지만 도공두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차사발을 만드는 일에 종사

한 것은 조선 사기장이었습니다.

이 ‘왜관요’도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모포 왜관의 내부에 축조한 가마에서 조업을 시작한 1640년경부터 초량으로 왜관이 이전한 1678년까지를 ‘전기의 구관기 왜관요旧館期倭館窯’, 이후 1718년 폐요할 때까지를 ‘후기의 신관기 왜관요新館期倭館窯’라 부릅니다. 신관기 왜관 가마의 조업에 대해서는 이즈미 초이치泉澄一씨의 상세한 연구에 의해 보다 내용이 분명해졌는데, 구관기 왜관 가마의 조업 상황에 대해서는 문헌 사료가 부족하고, 또 가마터 발굴 조사도 진행되지 않아 확실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에 전해오고 있는 많은 고려다완은 전기 또는 후기의 왜관 가마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으로는 신관기 왜관 가마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 법기리 가마는 일본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고려다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기리 가마는 제가 말하는 ‘종래요’로써 오래전부터 도자기를 생산해 왔는데 그것도 꽤나 규모가 큰 가마로 알고 있습니다.

법기리 가마터는 20여 년 전에 윤용이 선생의 안내로 처음 방문했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법기리 가마가 고려다완에 있어서 중요한 가마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 신한균 선생님께서 법기리 가마에서 고려다완이 출토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채집된 사금파리 자료를 보니 ‘종래요’에서 생산하고 있던 사발류와는 분명히 다른 기이라보黃伊羅保, 삼족와리고다이三つ足割高台, 철화다완鐵絵茶碗, 고힌미시마다완御本三島茶碗 등을 생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기리 가마는 왜관 가마와 장소가 다르며, 또 이들 사금파리 채집 자료로 볼 때 ‘종래요’와는 다른 타입의 사발류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법기리 가마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차용요’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기리 가마가 ‘차용요’의 전.후기를 통틀어 고려다완 생산을 계속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가마의 발굴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기에는 법기리 가마와는 다른 ‘차용요’가 존재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변례집요邊例集要』에도 쓰여 있듯이 김해 주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가정하고 현재 김해시 부근의 가마터를 조사했지만 그럴

만한 가마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 김해부는 현재 김해시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김해의 전기 차용요’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구관기 왜관요’가 조업을 시작했을 때도 왜관요의 하청 가마로서 고려다완을 생산하고 왜관요에 생산품을 납품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 법기리 가마는 고려다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가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는 학술적 발굴 조사가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가 이어진다면 가마터 파괴가 진행될 것이고, 발굴한다고 해도 큰 수확을 얻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큼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법기리 가마터 발굴 조사가 이뤄지면 고려다완 뿐 아니라, 한국 도자기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루 빨리 발굴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부록) 어본다완御本茶碗을 만든 가마 -법기리 가마

오래 전 일이 되어 버렸지만, 각지의 미술관에 근무하는 학예원이나 도예가들이 한국의 가마터를 조사했던 일이 있었다. 이후 매년 한 번 이상은 한국을 방문해 주로 남부의 가마터 발굴 조사를 계속했고, 그 성과를 2003년 가와라 출판사에서『고려다완 논고와 자료』라는 책으로 낼 수 있었다. 그 책을 출판했을 당시에는 그것으로 한국의 가마터 발굴 조사는 일단락됐다는 기분이 들었고, 그런 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어떤 해에는 몇 번씩 찾고 있다. 단지 예전과 같이 가마터 조사 일변도가 아니라 본래의 전문 영역인 차문화를 연구한다는 목적이 추가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고명한 도예가인 고 신정희 선생의 장남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 도자기를 빚으며, 고려다완 연구를 하고 있는 신한균 사기장을 만나게 되었다. 고 신정희 선생은 한국에서 이도다완을 비롯한 고려다완을 처음으로 재현한 인물이다. 어느 날 신 사기장에게서 연락이 있었다.

-선생님, 어느 가마에서 어본다완御本茶碗-17~18세기에 걸쳐 일본에서 디자인하여 주문하고 조선에서 생산했던 찻사발-과 유사한 것이 출토됩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한국으로 건너 와 신 선생 안내로 그 옛 가마터를 찾았다. 양

산 법기리 가마터였다. 거기엔 지금까지 조사한 가마터에서 출토된 것과는 확실히 다른 사금파리들이 많았다.

나는 지금까지 일본에 전해오는 고려다완의 대부분이 왜관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며, 특히 어본御本이라 불리는 종류나, 가타미가와리 이라보片身替伊羅保나 기이라보黃伊羅保 등은 왜관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동안 50여 곳의 가마터를 조사한 결과로 내린 판단이었다. 미시마와 하케메, 혹은 이도나 가타테堅手 등과 같은 16세기 차회기에 등장하는 고려다완과 비슷한 사금파리는 확인되었지만, 17세기 이후부터 문헌에 나타나 지금까지 전해오는 고려다완과 유사한 것은 전무하다 해도 좋을 정도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도 이즈미 조이치泉澄一 선생이 종가 문서를 꼼꼼히 조사하고 왜관가마의 생산상황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왜관가마에서는 주로 17세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걸친 50년 정도 사이에 대량의 다완을 생산했고, 대부분이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쓰시마를 비롯해 에도나 오사카, 교토까지 널리 유통되었다고 한다.

17세기 전반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공 후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그것이 회복된 것은 1609년 기유약조가 체결된 이후가 된다. 비록 일부의 가마로부터 일본에 건너갈 그릇이 생산되었다고 추정하더라도 종류나 수량은 대단치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신 선생이 안내해 준 가마터에는 지금까지 조사했던 가마터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여러 종류의 사금파리들이 나뒹굴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일본에 전해져 온 고려다완과 유사한 사실을 알았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지금까지의 생각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찾사발로 생각되는 어떤 굽 부분 사금파리를 보면, 굽은 분명히 고키다완吳器茶碗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조사된 다른 가마터에서는 보지 못한 것도 보인다.

또한, 굽 내부에 달팽이 모양의 커다란 우즈마끼渦巻螭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구기보리이라보釘彫伊羅保 외에 겐에쓰다완玄悦茶碗이라 부르는 어본다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굽 내부 처리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다른 가마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굽고 깊게 깎아 낸 것은 본 적이 없었다. 어떤 것은 굽을 원형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리처럼 만들었는데. 와리고다이割高台보다는 훨씬 제작의도가 강한 굽 처리 방법으로 이 역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이런 몇 가지만으로도 이 가마터가 일본에서 말하는 고려다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이들 정식발굴이 아닌 지표조사로 수집

한 조각들만으로는 가마의 성격과 생산한 도자기의 종류, 일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으며, 추정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조선의 고려다완 생산가마 변천표(高麗茶碗に関する略年表)

1506년 고려다완 문헌에 처음 등장	종래요 시대	민간인이 사용했던 도자기를 굽던 민간가마(민요)에서 고려다완 만들었다
1510년 삼포왜안		
1533년 차회기(일본) 시작		
1537년 고려다완 차회기에 처음 등장 (『松屋會記』)		
1550년 고려다완 사용이 현저히 증가		
1570년경 일본취향 다완 생산 시작	전기 차용요	왜관에 가마를 설치하기 전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민요나 지방관요를 빌려서 일시적으로 일본취향 도자기를 굽었던 것이 아닐까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침략(임진왜란)	후기 차용요 (1620년 경부터)	
1603년 영도에 임시왜관 설치		
1609년 기유조약 체결, 국교회복	구(고)관기 왜관요	왜관요는 1678년 이전했기 때문에 이전 전 두모포의 생산 기간을 구(고)관기, 초량에서 생산했던 기간을 신관기로 한다.
1639년 두모포 왜관 밖에 가마 축조		
1644년 두모포 왜관 내에 가마 축조		
1678년 초량 왜관으로 이전 대규모 도자기 생산 시작		
1718년 왜관요 생산 정지	신관기 왜관요	

신한균 발제문

3. 법기리 찻사발

신한균 (도예가)

양산은 조선초기에 도자기를 빚어 장흥고나 인수부 글자를 새겨 궁중에 납품 하던 고장 중 하나였다.



분청사기이다. 양산 인수부, 양산 장흥고 사금파리

개인소장

이 글에서 논하는 것은 양산에서 빚은 분청사발이나 백자사발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인이 사발을 주문해 조선사기장(도공)이 이것을 빚어 일본으로 건너가 찻사발로 전용된사발이야기다.

일본이 조선에 찻사발을 주문하기까지 역사적 상황을 알아보면, 역사적 기록에는 1603년 절영도(지금의 부산 영도)에 임시 왜관을 설치하여 부분적으로 무역을 허락하고, 1607년에는 조선과 일본은 수교하여 1609년에는 기유조약을 맺어 부산포를 개항하여 본격적인 무역이 시작된다.

수교 후, 조선측에서는 일본 담당자가 동래부사였고, 일본은 대주(쓰시마)의 다이묘(영주)였다.

1611년, 일본측이 특별히 동래부사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바로 양산 법기리 찻사발이었다.

그러면 그때의 양산의 법기리에서는 어떤 사발을 만들어 일본에 보냈을까?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생산한 사발들이 그들이 이라보다완(伊羅保茶碗)이라 부르는 ‘양산사발’이다. 필자가 이라보다완을 양산사발이라 부르는 이유는 다소 거칠게 보이는 이런 사발류는 양산 법기리에서만 생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일본에서는 ‘이라보’라는 분류명이 생겨났을까?
첫번째 이라보(伊羅保)란 이름의 유래는 일본 만엽집(萬葉集. 일본의 고대사의 비밀을 간직한 시가집)에 나오는 이라(伊羅)는 썩기품을 의미한다. 보(保)는 이삭이 나오는 것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광의로 해석하는 거칠거칠한 이삭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발을 만지면 전부 거칠거칠한 손맛을 느낀다.
두 번 째로 일본의 차서로서 가장 오래된 만보전서(万寶全書)에는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아 안달이 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 당시 일본 차인들이 양산사발을 간절해 원했던 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고어로 ‘이라이라’는 ‘오세요. 오세요.’ 를 뜻한다.)

또한 이 책에는 “이라보자완과 비슷한 것은 값이 비싸다”라고 적혀있다. 일본의 차 세계에서 양산사발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1624~1644년 전후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인기있는 사발이다.

필자는 양산사발들의 유약의 특성과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양산이중유사발, 양산약토사발, 양산거친아리랑굽사발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 양산이중유사발

(가다미가와리 이라보 - 片身替伊羅保)

특징은 장식질 유약인 투명유를 반을 입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약토 유약을 입혔으며, 내부에 귀얄기법으로 장식되어있다.(注 : 귀얄기법이란 백색토로 원형을 추상화해서 그려 넣은 도자기 장식기법)

전체적으로는 붉은 끼를 띤 것과 파란 끼를 띤 것이 있으며 굽은 대나무 마디 모양으로 깎았으며 눈에 띠게 굽은 모래를 받쳐서 구웠다. 사발 동체에는 일본 차인들이 이시하제(石はぜ)라고 부르는 돌이 박힌 흔적이 멋스럽다.



양산 이종유 사발

전체적으로는 섬세한 작위가 충분히 작용하여 차인이 지향하는 미의식을 따랐다. 천종(千種)이라는 일본 재상이 소장했던 천종이라보자완(千種伊羅保茶碗)도 이 범주에 속해있으며 일본 에도시대의 차인이 이상으로 추구하는 미의식을 한껏 표출 시킨 찻사발이다.

(2) 양산약토사발 (기 이라보 - 黃伊羅保)

말할 나위도 없이 전체적으로 유약이 노랗게 발색한 약토 유약으로 빚은 사발을 의미한다.

전 부분을 약간 젖혔으며 깎은 굽도 선(禪)적 경지에 몰두한 조선 사기장의 신성한 작업정신을 느낄 수 있다.

태토는 철분이 많으며 간혹 흰색을 띤 것도 있다. 내부에 모래자국이 있는 것은 이라보자완(伊羅保茶碗)의 공통된 특성이다.



황이라보

양산법기리사금파리

전체적으로 조선 사기장의 깊은 솜씨가 느껴지는 찻사발이다.

일본에서 이라보를 빚는 도예가들은 대다수가 자기 작품이 옛날 조선 사기장이 빚은 양산약토사발과 비교하는 자체가 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도구를 만드는 일본 도예가에 있어서 조선의 사기장은 그들의 영원한 스승이기 때문이다.

(3) 양산거친아리랑굽사발 (구기보리 이라보 - 釘彫伊羅保)

양산의 법기리에 가장 많이 만들어진 찻사발이다. 철분이 많은 점토에 모래가 혼합된 독특한 태도를 사용했으며 굽 부분에서 허리에 걸친 칼자국 자리가 폭이 넓으며 구연부(차를 마실 때 입에 닿는 부분.) 처리가 획일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유정신을 추구하는 조선 사기장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좌) 굽에 굽게 아리랑 문양이 있는 양산거친아리랑굽

(우) 양산 법기리의 사금파리 굽

굽 가장자리를 깎아 돌린 것은 차도구로서 중요한 불거리이며 표면에서 느껴지는 까칠까칠함이 큰 특색이다.(이 찻사발을 잡을 때의 까칠한 느낌에서 이라보라는 호칭이 유래되었다.)

구기보리(정조 - 釘彫)의 의미는 못으로 굽을 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전체적으로 산화 불을 댈 소성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중성불을 댈 것도 많다.

그런데 양산 약토사발과 거친 아리랑굽사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째는 유약이 다르다. 양산약토사발은 약토유이지만, 아리랑굽사발은 약토유

로 보이나 사실은 재가 많이 섞인 일반 투명유를 얇게 바른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양산약토사발은 굽이 거친아리랑굽이 아니다.

자! 그러면 양산 법기리에서 이것들만 빚었을까?

아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사발과 도자기를 빚었다.

양산 법기리 가마는 1638년경에 부산 왜관근처(수정동)로 옮겨간다.

그리고 1644년 부산의 왜관안으로 이주한다. 이때부터 왜관에서 만든 조선사발의 명칭은 어본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는다. 또 양산 법기리 때는 법적으로 일본인은 왜관밖으로 나갈수 없었다. 하여, 일본인이 디자인하여 그린 서계를 조선역관이 조선 사기장에게 전달하여 만들었다. 일본인의 간섭이 적기에 양산 사발들은 일본의 디자인임에도 조선식 사발의 특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부산 왜관내에서 일본의 도공두(주로 다도 선생)의 직접지시를 받아 만든 어본다완은 조선사기장의 손길을 거쳤지만 형태는 대부분 완전 일본식 찻사발이었다.

하지만 부산 왜관에서 만든것과 같은 사금파리가 양산 법기리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유추해보면 주문 사발 양산 법기리에서 빚다가 부산왜관요로 이전 한 후 공식적으로는 주문사발을 부산 왜관요에서 빚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양산 법기리에서 그 와 똑같은 것을 계속 빚었다는 뜻이다.

아래의 사진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양산사발의 사금파리



조선사발의 사금파리

눈박이가 다르다. 양산 법기리에는 일본주문사발과 조선인을 위한 백자사발을

동시에 빚었다. 주문사발과 조선사발 사이에는 눈박이부터 전혀 다르다.

일본 주문품의 눈박이는 굵은 사질을 섞어 사용했고 조선의 그릇은 가는 화도 높은 백토나 규석을 사용했으나 굵은 사질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 눈박이는 불을 댈 때, 그릇을 포개어 불을 댈다. 불에 녹지 않는 흙으로 만든 눈박이가 포개 그릇 사이에 있어야만, 불 댄 후 그릇을 분리할 수 있다.



어본현열다완

범기리사금파리

왜관에서 만든 사발의 명칭은 일본에서 파견한 도공두(변수)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바로 왼쪽의 그릇은 어본현열다완 (御本玄悅茶碗)이다.

‘현열(玄悅)’이라는 도공두의 이름을 붙인 부산왜관에서 만든 사발이고 오른쪽은 양산 범기리의 사금파리이다.

때깔(색깔)이 달라 보이지만, 그것은 불에 따라 때깔이 다른 것이지 흙이나 그릇 형태는 한 종류이다.



회어본(绘御本 - 에고혼)이라는 부산 왜관요에서 만든 사발이다. 양산 범기리의 사금파리를 통해 같은 종류의 그릇임을 알 수 있다.



(좌)는 양산거친아리랑굽사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는 거친아리랑굽사발은 아니나 형태가 아주 닮아있다. 백자계통의 사금파리이다. 이것은 양산 범기리에서 아주 다양한 사발을 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좌)는 어본이라 부르는 부산 왜관에서 만든 사발이다. 눈박이는 떼어내어 사용했기에 잘 보이지 않는다. (우)는 양산 범기리의 사금파리다. 같은 종류로 보여진다.



좌) 어본삼도(御本三島)라 불리는 부산왜관사발이지만, 이것은 부산 왜관요에서 우리의 옛 분청사발을 모방한 것이다.

우) 양산 법기리가 도자기를 생산 할 때는 조선의 다른 가마들은 백자만 빚었지 분청은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이런 분청 사금파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법기도요지가 공식적으로 부산왜관으로 이전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법기가마에서는 계속 일본 수출다완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양산 법기리의 일본 주문품 사발의 특성을 보면 각 종류마다 굵이 정확히 일치한다. 종류에 따라 거의 같은 형태와 크기마저 일본인이 정해 주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쪽의 사금파리를 보면 양산 법기리에서는 사발 뿐만 아니라 일반주문도자기도 구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주문한 조선사발 중에는 역관사발(판사다완 - 判使茶碗)이라 불리는 사발이 있다. 왜관에서 만든 어본사발과 차이점이 거의 없다. 바로 이것도 양산 법기리에서 빚었다.

기록에는 역관들이 이것들을 하도 많이 가지고 와 이것들을 전부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을 썼다고 한다.



역관사발 (判使茶碗)

개인소장

우리의 제기였던, 즉 도린굽사발(割高台茶碗 - 와리고다이자완)이 있다. 양산 법기리에서는 이런 도린굽 사발의 사금파리도 나왔다.

양산 법기리 가마터는 한.일간의 도자역사를 풀어주는 열쇠라 생각한다.

이 가마터를 발굴한다면 일본인들이 그토록 아끼고 그리고 보물이 되어 있는 조선사발들의 미스터리를 푸는 실마리가 반드시 나온다고 확신한다.



주문도린굽사발(학고태다완)

개인소장

(4) 양산 법기 도자의 기록 소개.

『邊例集要』

권 12 求貿

辛亥年(1611년) 三月

府使趙存性時 倭人持書契 請陶鑄茶器甫兒瓦器等物 使金海匠人陶給緣由 馳啓 無回下

“동래부사 조존성 때 왜인이 서계를 가지고 와서 도수, 다기보시기, 기와그릇(투박한 사발) 등의 물건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김해의 장인으로

하여금 도자기를 구입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라는 연유를 치계하였다. 회하는 없었다.

同四月 牛黃羊口·鷹子·陶器 求貿書契 頭倭橘智種等 賚來呈納是白乎等
以同書契 捧上上送爲白乎拵 各種物種 報本道分定入給 而其中鷹子段
減數許貿計料事 啓 無下回

“우항양구, 응자, 도기(陶器, 분청자로 여겨짐) 등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서계를 두왜 굴지종 등 가지고 와서 바쳤는데, 같은 서계를 받들어 위로 보내오며, 각종 물종은 경상도에 보고하고 각기 나누어서 입급하였는데, 그 가운데 매(응자)는 숫자를 줄여 구입을 허락하려고 합니다.” 라고 장계하였다. 회하는 없었다.

* 陶鑄 : 형태를 미리 틀로 만들어놓고 그 속에 흙물을 채워 만드는 도자기라 생각된다.

* 回下 : 올린 장계에 대해 상부관청에서 내리는 답신

* 頭倭 : 우두머리 왜인이란 뜻으로, 정례적인 외교사행은 아니며, 통신사나 문위역관의 장계를 가져오기도 하고, 구청이나 구무를 요청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함.

* 分定 : 분량을 지역별로 나누어 배당한다는 뜻임.

* 入給 : 지급해 넣어드립니다.

여기에 법기리라는 글자는 없고 김해의 장인을 시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양산사발의 사금파리는 양산 법기리에서만 출토된다. 왜일까?

김해는 임진왜란 때 첫 시기부터 마지막까지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찻사발은 일본다도를 위한 그릇이다. 임란당시 다도를 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사무라이이자 영주인 다이묘들이었다. 다도를 하는 다이묘들은 자기가 디자인한 것을 사기장을 불러 직접지도하여 찻사발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찻사발은 일본에 많이 있다. 예를들면 오리베야끼 등이 있다. 임진왜란은 다이묘들이 왜군 장수가 되어 우리나라를 침략한 전쟁이다. 김해는 당시 일본의 여러 장수가 거쳐간 장소이다. 그래서인지 긴카이, 김해(金海)라고 불리는 사발들이 일본에 많다. 이런 김해사발은 대부분 임란 중에 다이묘들이 자기가 디자인한 것을 김해의 일본군의 진중에서 조선사기장을 시켜 만든 것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인의 취향에 길들여진 조선 사기장들이 김해에 더러 있었다.

여기서 김해장인을 시켜 만들었다는 이유는 기록한 일본취향을 아는 김해 사기장을 동래부에서 양산 법기리로 불러 만들었다고 추정된다.

사실, 일본식민지 시대 일본인들이 양산사발(이라보)을 만든 곳이 김해라 추정

하고 김해를 샅샅이 조사했으나 김해에는 사금파리를 찾지 못했다. 해방이후에도 김해에서 일본주문사발의 사금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양산 법기리에서 양산사발 사금파리가 많이 나왔다. 이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사람이 도예가인 마시미즈 쇼록구(眞清水藏六)이다.

그는 이 사실은 1918년 ‘도기(陶奇, 예초당, 일본국회도서관 소장)’에 발표했다. 그리고 유명도예비평가인 야수건(野守健)이라는 사람도 법기리를 방문한다. 그 후, 법기리는 일본 도자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진다.

그리고 법기리의 사금파리와 양산사발의 관계를 증명한 논문을 일본의 ‘기요’라는 인문학술지에 발표한 최초의 한국인이 있다. 그가 바로 필자이다.

(5) 일본인이 주문한 조선사발 비교

지금부터 이야기 할 이 사발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일본이 임진왜란 후에 주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일본 특유의 형태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본래 조선의 사발을 보고 디자인하여 주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발들을 찾아가 봅시다.

- 각급사발

이것들의 형태는 정말 조선의 일반적 형태는 아닙니다만, 딱하나 굽부분을 제외하고 조선의 향교용 제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형태를 보고 ‘오리베 취향’이라 합니다.

오리베는 센노리큐가 할복 한 후, 그 자리를 이어받은 유명 차인이자 무사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이 사람이 디자인 했다고 합니다.

필자가 각급사발이라는 분류명을 붙인 이유는 이것들의 굽은 모두 칼로 깎아 각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백각굽 사발. 일본분류명 : 어소환다완(御所丸茶碗) 고쇼마루자완. 유키미술관 소장

흰 것은 백각굽사발 그리고 검은색과 흰색이 조화된 것은 흑백각굽사발이라 부릅니다.

이 사발들의 분류명이 고쇼마루자완 (어소환다완 - 御所丸茶碗)인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을 완성하여, 조선에 올 때 타고올 배 이름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에 지고 병이 들어 죽습니다.

아마도 도요토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붙인 분류명이라고 필자는 추정합니다.



흑백각굽사발, 일본분류명 : 어소환다완(御所丸茶碗) 고쇼마루자완 미쓰이문고당 소장

각굽사발은 일본에서 주문한 차사발 중에서 가장 먼저, 주문한 사발입니다.

그러나, 이 사발의 형태는 분명 우리나라 고유의 형태가 아니라 일본적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도 다 빛을 수 있었던 조선의 사기장의 솜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각굽사발들은 엄청난 고가로 경매됩니다. 현재 10개정도 일본에 있습니다만, 김해에서 빛었는지 김해의 사기장을 양산에 불러 빛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 주문김해사발

김해의 일본식 발음이 ‘긴카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앞의 각급사발이 ‘오리베’취향이라
면, 이 김해사발은 ‘엔슈취향’입니
다.

엔슈는 ‘오리베’가 활복한 후 일본
최고의 다인이 된 사람입니다.

‘엔슈취향’이란 엔슈라는 사람이 디
자인해서 주문했다는 뜻입니다.

주문품 중 김해에서 빚어 간 것들을
‘김해사발’이라 부르지만, 예부터 조
선사발과 같이 전해 내려온 이것을
담은 상자에 ‘金海’라고 써져있는 것
들도 ‘김해다완’이라 부릅니다. 그래

서인지 ‘김해다완’은 형태와 질감이 아주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이런류가 ‘김해사발’이라고 말할 수 없을정도로 다양한 형태들이 있
습니다.

이 중에는 ‘金海’라고 사발에 직접 글을 새긴것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옛 상자에 김해라고 써놓은 것 그리고 사발에 김해라고 직접 각인한
것등 모두 ‘김해사발’이라 부릅니다.



일본분류명, 김해다완 (金海茶碗)긴카이자완
키타무라 미술관

- 양산주문사발

일본에 이라보다완(伊羅保茶碗) 라 부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문품이며, 양산 법기리 한 곳에서만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발들의 모습이 아주 거칠고 투박합니다.

또, 이것을 일본은 세 종류로 세세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자세히 보면 유약이 반반씩 두 종류가 입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유약을 입힌 사발, 카타미카와리(片身替)라 부릅니다. 또 불타는 가마속에서 저절로 생긴 요변에 의해 두 가지 때깔이 나는것도 카타미카와리(片身替)라 부릅니다.

두 가지 유약 중, 하나는 일반 분청이나 백자의 유약인 투명유이고 나머지 하나는 약토와 재를 섞은 약토유입니다.

약토는 높은 산에 가보면, 나무밑에 잎이 썩어서 된, 시커먼 흙을 말합니다. 필자는 이것을 반약토사발이라 명명했습니다.



양산이종유사발, 분류명 이라보편신체 다완 (伊羅保片身替茶碗) 카타미카와리 자완. 가네자완시립중촌 기념관

약토 사발 중 오른쪽은 노란색이 유달리 진한 사발입니다.

일본은 노랑다는 뜻의 한문인, 황(黃)자를 붙여, 황이라보다완(黃伊羅保茶碗 - 키이라보자완)이라 부릅니다. 이것의 유약은 약토와 나무재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사금파리는 필자가 양산 법기리에서 많이 보았습니다만, 양산 법기리 이후에 조성된 부산 왜관내에 있던 왜관요에서도 빚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일본에 발견된 약토사발중 아래에 등장하는 학이 그려진 사발의 학문양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약토사발이 발견되었다 합니다.



양산약토사발, 일본분류명, 황이라보다완(黃伊羅保茶碗) 석천가네자와현립 미술관

이 학문양은 일본의 에도정권의 3대 통치자의 문양이기도 합니다.

3대 통치자 시절에는 부산요에서만 차사발을 주문했습니다.

이 사발을 일본인들은 천종이라보, 또는 이라보편신체다완(伊羅保片身替茶碗)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발의 유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토입니다.

이 사발은 일본인이 무엇을 보고 주문했을까요? 바로 고려 시절 녹청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녹청자를 보고 주문한 것입니다.



양산거친아리랑굽사발

일본분류명 ; 정조이라보다완(정조이라보다완) - 구기보리이라보자완

구기보리이라보라는 뜻은, 마치 못으로 이 사발의 굽과 굽내부를 깎았다는 뜻으로 일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점토에 거친 사질을 넣었고, 유약은 투명유를 얇게 입혀 불때기를 한 사발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이 사발은 타는 장작불에서 얇게 입혀진 유약과 태토의 철성분이 어우러져 마치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뚝배기 같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토는 철물이 많은 점토에다, 거친 사질을 섞어 사용했습니다.

일본에 많은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발들은 깨어져 수리한 것은 값어치가 없다고 합니다.

- 주문 부산사발 (어본)

어본이란 뜻은 그림까지 그려 주문한 도자기를 말합니다.

기록은 한국에도 일본에도 옛날 그 당시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후, 공식적으로 일본과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은 부산의 왜관이었고, 바로 부산의 왜관에 가마를 설치하고 빚은 사발을 어본사발이라 합니다.

이 사진의 사발은 어본사발, 즉 부산주문사발의 대표적인 사발입니다.



일본분류명 ; 어본다완(御本茶碗)
고훈자완, 개인소장

필자가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책에는 바로 이 부산사발들은 부산의 왜관요에서 제작된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양산의 법기리'에서도 이 부산사발과 똑 같은 사금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부산의 왜관요에서 부산사발을 빚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양산의 법기리에서도 부산사발을 많이 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문입학부산사발, 일본분류명 ; 어본입학다완
(御本立鶴茶碗) 고훈다씨쓰루자완, 노무라미술관

어본사발이라 부르는 주문부산사발은 일본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 역관사발

조선과 일본사이에서 통역을 하던 역관들이 일본 쓰시마에 판 것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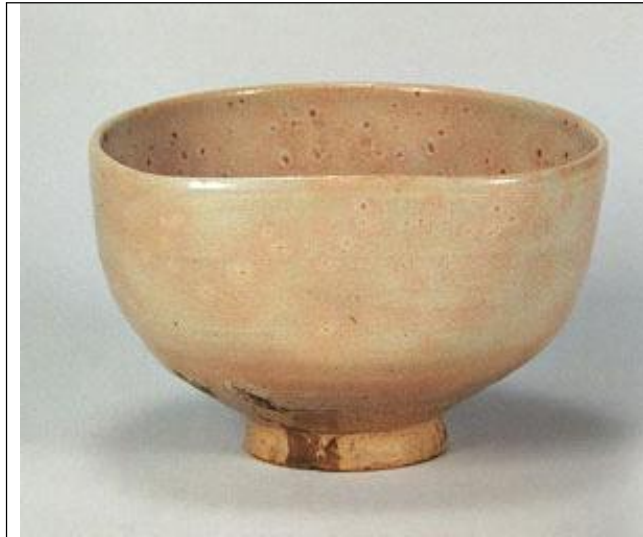
쓰시마의 옛 기록에 의하면, 이 역관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사주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 사발의 한국이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공통적인 형태도 없고, 공통된 도자기 기법도 없고 단지 그 당시 일본차인의 취향에 따라 일본말을 하는 통역관들이

양산법기리에서 주문해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또한 부산사발(어본)과 반스라는 이 사발의 차이점이 뚜렷하지 않아 단지, 이것을 담은 상자의 기록만 보고 붙인 이름입니다.



일본분류명 ; 판사다완(判使茶碗)

한스자원, 개인소장

3. 도요지 발굴, 복원 사례를 통한 도자문화컨텐츠 개발

장 기 덕(도자학 박사)

1. 서 론

인류의 생활 문화는 수렵 생활과 채취 생활에서 점차 농경과 목축에 의한 경제생활로 바뀌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농경 생활 방식은 정착생활을 가능하게 하였고, 정착생활을 위해서는 잉여 생산물의 저장이 필수적이었다. 도자기는 인류문명의 시작과 함께 만들어져온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창조물이다. 인류가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장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저장 기술의 발달은 잉여 자원의 축적과 부의 증대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토기로 시작되어진 도자기의 발명은 인류문명 최초로 생산된 하이테크 산업의 출발점인 동시에 인류문명의 위대한 발명품이었다. 결국 인류문명의 발달은 도자기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가마의 구조와 소성 방법의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도자기의 재료, 제작 방법, 형태, 용도, 특성 등이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또한 높은 온도로 소성할 때 사용한 나무의 재가 도자기 표면에 달라붙어 점토 속의 석영과의 결합으로 유리질을 형성하는 현상을 보고 도자기 유약을 개발하게 되었고, 유약의 사용으로 실용성과 아름다움이 한층 더 하게 되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세라믹 기술을 가진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할 정도로 흙을 빚고 구워내는 기술은 예나 지금이나 첨단산업인 것이다. 이러한 도자기 제작은 인류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기술로서 한 나라의 문화적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었다.

도자기의 발전과 특징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자기를 구운 가마터인 “도요지”이다. 도요지에는 도자기의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성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통해 도자기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또한 가마의 발달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국가사적지 제100호로 지정된 양산 법기리 도요지는 다른 도요지와 다르게 주문용 도자기가 생산 되었던 특별함이 있는 도요지이다. 법기리 가마에서 생산 된 도자기는 일본의 차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차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화려한 서원 차 문화가 성행하던 시기에 화려함의 극치를 맛 본 일본의 다도계는 소박한 차 문화를 지향하며 조선에서 소박하고 간결함이 스며 있는 찻사발을 주문하여 와비사비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소박한 찻자리를 완성하였다.

법기리 도요지는 주문을 받아 도자기를 생산한 곳이며 다도를 즐기던 일본의 상위계층은 그들의 취향에 맞게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 주문을 했던 주문 찻사발이 만들어진 특별한 도요지인 것이다.

17세기 초 법기리 도요지에서 생산 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찻사발들은 현재 일본 찻사발의 원류가 되어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 혹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II. 본 론

본 발표에서는 국내의 도요지 발굴을 통해 보존과 연구를 하고 있는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광주광역시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충효동 도요지), 고흥 분청문화 박물관(운대리도요지), 부안 청자박물관, 경기도 광주-분원 백자자료관, 강원도 양구 방산자기박물관 등의 지역을 살펴보고 선행 지역의 발굴 및 보존을 방법과 도자문화의 역사성을 통해 향후 양산 법기리 도요지의 발굴, 보존과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의 기초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전라남도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1) 고려청자박물관

고려청자박물관은 1970년대 고려청자의 재현을 위한 고려청자사업소로 시작하여, 1997년 9월 강진청자자료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1999년부터 매년 특별전과 학술세미나, 공모전을 개최해오면서 유일무이한 청자 전문박물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6년에는 강진청자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였고, 2015년에 고려청자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층 규모에 연면적 2,109㎡로 대구면 일대에서 발견된 청자 도편을 비롯해 소장 유물 3만 여점을 소장한 고려청자박물관은 2기의 실물가마터와 청자 전시판매소, 청자사업소 도예문화원, 넓게는 청자촌까지 커다란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박물관의 1층에는 시청각실과 소장 유물을 전시하는 기획전시실이 있고, 2층에는 청자 제작과정 등의 설명과 강진의 가마터에서 발견된 도자기 파편을 전시하는 상설전시실이 있다. 박물관 외에 별도로 위치한 사당리 41호와 용운리 10호 가마터가 전시되고 있고, 반대편으로는 요업과 관련된 작업장터가 낮은 울타리로 보호되고 있다.



(그림1 고려청자박물관)

(2) 강진 도예문화원

강진 청자박물관의 바로 옆에는 2005년에 개관한 도예문화원이 자리 잡고 있다. 지상2층, 지하1층에 연면적 약 3,000㎡ 규모이다.

1층에는 단국대 부설 ‘강진도예연구소’가 개소하여 태토, 유약, 등 재료의 성분 분석을 통한 계량화, 디자인 개발 등, 청자와 도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실과 제품개발실, 15대의 전동물레를 갖춘 실습실, 전기가마가 설치된 소성실 그리고 시청각실로 구성되어 있다. 2층에 마련된 일반전시실에는 지난 7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진사업소에서 재현한 작품 50여점과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기획전시실에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해외 작품 등 현대 청자를 주로 전시한다.



(그림2 강진 도예문화원)

(3)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박물관은 섬세하고 정교한 고려청자 제작기술을 볼 수 있는 유물 전시, 직접 흙을 빚어 촉감으로 느끼는 빚기체험, 그리고 현대 디지털 기술로 재탄생한 콘텐츠 전시 등 고려청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각체험-물컵, 머그컵, 반상기 등 완성되어 있는 그릇의 표면에 글씨나 그림을 새겨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체험학습.

코일링체험-제공된(약 500g) 흙을 가래떡 모양으로 만든 뒤, 원하는 모양으로 쌓아 올려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물레(비번조)체험-제공된(약 1kg내외) 흙을 물레에 올려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4) 청자 관련 사업 현황

1977년 6월 사당리 에서 청자 재현 가마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청자재현사업이 시작되었다. 청자가 생산을 멈춘지 거의 600년만의 일이었다. 1986년 청자사업소가 공식적으로 개소한 후 현재까지 청자 재현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2009년 개교한 도예학교는 강진군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폐교 대구면 저두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졌다, 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가 전담하고 있는 이 학교는 3개월, 6개월, 1년 과정으로 전문 도예가를 양성하는 정규반 과정 이외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좌와 계절대학을 개설하고 있다. 지역 시설을 재활용한 방법적인 측면이나 강진청자박물관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교육과 연구의 부분을 담당하고 지역 도예가 육성을 통해 도자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계기로 보여 진다.



(그림3 강진 도예학교)

2. 광주광역시 - 충효동 도요지

(1)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

광주 북구 풍암제길 14 (금곡동 金谷洞)에 소재하고 있으며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도자기를 만들던 가마터가 분포되어 있으며, 가장 크고 다양한 도자기를 구워내던 곳이다.

1963년과 1991년의 발굴 조사 결과 2호 가마는 봉통에서 굴뚝까지 형태가 거의 남아 있어 우리나라 전통 가마의 구조를 알 수 있다.

국가지정 사적 제14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 54만 2000㎡의 부지에 1층으로 지어진 전시실이 있다. 일부 퇴적층과 가마의 형태를 조사하여 파편들을 확인 결과, 가마 주변의 퇴적층에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 순으로 파편들이 쌓여 있어 우리나라 도자기 변천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퇴적층에는 상층에서 백자와 귀얄문, 그 밑에서 박지문(剝地紋)·조화문(彫花紋)·상감문(象嵌紋)·인화문(印花紋) 등이 출토되어 분청사기의 문양과 발달과정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인화문 파편에는 ‘광(光)·광공(光公)· 정윤이(丁閏二)· 내섬시(內贍寺)’ 등의 명문(銘文)이 있어 지방 관요이면서도 중앙의 관수용품을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



(그림5 충효동 도요지)

(2) 프로그램 운영 현황

무등산 분청사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광주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7 ‘덤벙침벙 분청교실’을 운영.

분청교실은 제141호인 광주 충효동 요지와 무등산 분청사기전시실, 사적 인근의 민간 도예공방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9월16일부터 11월11일까지 격주 토요일 마다 총 5회 진행된다.

분청교실에서는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한성욱 원장의 안내로 무등산 분청사기전시실과 가마터를 돌아보면서 충효동 요지를 중심으로 무등산 분청사기에 대한 이론수업을 실시한다. 이어, 평촌마을 도예공방을 견학하고, 인화 . 상감 . 덤벙 등 분청사기 제작 기법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그림6 분청교실)

3. 전라남도 고흥-고흥 분청문화 박물관

(1) 고흥 운대리 도요지

운대리 상대, 중대, 석촌, 운곡 마을에서는 고려청자 요지 4기와 조선 분청사기 요지 25기가 확인되었다. 이들 가운데 분청사기 요지 5기가 발굴되었으며, “운대리 분청사기 1·2호 요지”는 2011년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19호로 지정되었다. 그 외 운대리 가마터는 지방기념물 80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운대리 요지의 특징은 분청사기에 문양을 시문하는 방법은 상감기법을 비롯하여 인화, 조화, 박지, 철화, 귀얄, 분장 7가지 기법이 있으며,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에서는 모든 기법이 확인되어, 분청사기의 출현에서 쇠퇴까지의 과정과 제작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지역의 가마와는 달리 양질의 덩빙(분장) 분청사기가 전문적으로 생산된 점이 특징이며, 특히 굽까지 담그는 완전덩빙(분장) 분청사기는 운대리 분청사기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릇으로 운대리 분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흥 분청문화 박물관

국내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가마터인 사적 제519호 운대리 가마터에 자리잡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찬란하고 유구한 고흥의 역사를 기록·보존하고, 백토분장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이 돋보인 분청도자문화와 우리의 정신문화인 설화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건립되었다. 지상 3층 연면적 9천723㎡의 규모로 2014년 8월 첫 공사를 시작해 2017년 10월 말에 개관했으며 5개의 전시실에 약 1천2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1층에는 역사문화실, -선사·고대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불교, 임진왜란 관련 유물 등을 볼 수 있으며, 분청사기실-운대리 분청사기 요지를 소개하고 발굴 후 출토된 유물과 복원 재현품 등이 전시, 설화문학실-지역 무형자산인 구비문학과 설화 관련 자료·콘텐츠 성과물이 전시

2층에는 기획전시실-'유물 기증·기탁 운동'으로 기증받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림7 고흥 분청문화 박물관)

(3) 분청문화공원

설화의 내용을 조형물로 표현한 야외 분청공원이 조성 되어 있다.

(4)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가족문학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통해 고흥의 랜드마크로 발돋움을 꾀하고 있다.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작가의 삶과 철학, 문학을 고흥군에서 만나다.”

고흥군 출신으로 시조시인이며, 독립운동가인 조종현 선생님과 그의 아들 조정래 작가, 며느리 김초혜 시인, 이 예술인 2대의 삶과 문학, 그리고 가족을 담아낸 문학의 집이다.

(5)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박물관은 전시, 교육, 체험학습실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에 기여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10월 말에 개관하여 아직 프로그램은 계획 단계. 자체 개발한 문화상품 판매장도 운영한다.

4. 전라북도 부안- 부안 청자 박물관,

유천리 도요지는 사적 제69호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민족의 귀중한 문화 유산인 고려청자(상감청자)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있다.

(1)부안청자박물관을 지난 2011년 4월 7일에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유천리(柳川里)에 개관.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서 진품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동과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동, 그리고 천 년 전 고려청자를 구워냈던 가마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야외사적공원 등 다채로운 공간이 마

련되어 있다.

부안 청자 박물관은 1층과 2층 전시장에서 청자의 제작과정을 비롯해서 청자 역사실과 상감청자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청자명품실이 있다.



(그림8 부안 청자 박물관 조감도)



(그림9 부안 청자 박물관)

(2) 시설 및 프로그램

1층 청자제작실-상감청자 제작과정을 한 눈에 살펴보는 프로그램

청자 운송 도중 바다에 침몰하여 갯벌에 묻혀있는 유물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바다터널을 지나 상감청자의 제작과정과 개경으로의 청자 운반경로를 볼 수 있다. 비안도의 해저 속으로...,바탕흙 고르기와 반죽하기, 청자 빚기 및 상감 무늬 넣기, 첫 번째 굽기 및 유약 입히기, 가마 안에 청자 넣기,두 번째 굽기, 청자 선별 및 포장하기

청자체험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청자를 즐기는 프로그램

청자 포토 메일 보내기. 청자무늬 스탬프 찍기, 청자 만져보기, 나만의 청자 만들기, 청자이름 지어보기, 청자 브레인 서바이벌. 청자무늬 그리기

특수영상실-6축 시뮬레이터로 즐기는 4D 특수영상시스템(32석) 상감청자를 만
들어 개경으로 운반하는 과정 소개

2층 청자명품실-[명품 고려청자 감상하기!]

명품 청자를 통해 유물을 감상하고, 고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청자와
차문화.고려청자와 불교문화.고려청자와 귀족문화를 주제로 한옥형식의 진열장
에 나전칠기가구와 청자를 전시하였다.

청자역사실-[진품 유물을 통해 고려청자역사 이해하기!]

우리 도자기의 역사, 선화봉사고려도경과 고려청자,한 눈에 보는 부안청자
유천리 7구역 청자가마터 발굴유물, 고려 상감청자 무늬, 고려청자의 역사



(그림10 부안 청자 박물관)



(그림11 부안 도예창작스튜디오)

5. 경기도 광주-분원 백자 자료관[分院白磁資料館]

국가사적 제 314호로 으로 지정된 조선시대 왕실 가마터 유적지에 설립되었다. 분원 백자 자료관은 경기 도자 박물관 산하의 박물관으로 2003년 설립되었으며 규모는 총면적 약 330㎡ 이다. 2001~2002년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조선 백자 가마터 발굴을 계기로 조선 왕실 마지막 가마터 유적에 설립한 백자 자료관이다. 조선시대에는 사옹원분원 백자번조소(司饗院分院 白磁燔造所)였다. 사옹원(司饗院)이란 왕실과 궁궐에 필요한 음식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 관청의 명칭이며 여기서 쓸 백자 제작을 위해 경기도 광주에 설치한 백자번조소를 분원이라고 불렀다. 1752년에 설치하여 1883년까지 운영하다 민영화되었고 1900년경 몰락했다. 현재 남종면 금사리와 분원리에 340여개 소가 넘는 가마터 유적이 남아 있다. 광주의 가마터 유적들은 국가사적 제 314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시관은 바닥 도편 전시물과 토층 전사 패널, 멀티스크린, 분원리 출토 요도구와 백자편, 경기도 도자유적 파편 유물, 경기도 광주 백자편, 조선백자 완형 유물 등으로 나누어져 각기 백자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19세기의 <백자청화운룡문병(白磁靑畵雲龍文瓶)>, <백자청화모란문호(白磁靑畵牡丹文壺)>, <백자청화수복강령명대발(白磁靑畵壽福康寧文銘大鉢)>, <백자청화제명제기(白磁靑畵祭銘祭器)> 등이 전시되어 있다. 조선백자의 변천사와 백자 제조과정, 분원리 가마터 발굴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사옹원 발굴지를 둘러보고, 역대 사옹원 관리들의 선정비도 볼 수 있다. 경국대전 공전에는 백자 제작 관련 직제가 있으며 현재 광주시 남종면 금사리와 분원리를 포함한 6개 면 30개 리에 340여개소가 넘는 가마터 유적이 있다. 백자 제작 지원은 국가에서 했고 사기장을 포함한 380명의 법정인원과 단순 노동인력도 1,000여명까지 동원되었다.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도자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그림12 분원 백자 자료관)



(그림13 분원 백자 자료관 내부)

6.강원도 양구-방산자기박물관(方山磁器博物館)

(1) 도요지

도자기생산지로서 양구 방산면은 이미 고려시대 이래로 주목받는 곳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광주 분원에 원료를 공급하였던 곳으로 광주분원의 기술과 조형미가 이식된 곳이기도 하다. 방산면 일대 도요지 지표조사 결과 40기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그 지역은 양구군내 現 방산면 소속의 장평리, 칠전리, 현리, 송현리, 오미리, 금악리 등 6개 지역과 인접한 양구읍의 상무룡리 1개 지역을 포함한 총 7개 지역이다.

장평리에서는 7기, 칠전리 5기, 현리 4기, 송현리 7기, 금악리 4기, 오미리 4기, 상무룡리 9기 등 총 40기가 확인되었다. 약 7개 지역에서 백자를 제작할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료를 확인하였다. 조선후기 왕실 분원에서 생산되던 백자원료의 주요 공급처 가운데 하나가 양구군이었으므로 원료 수급 관계를 통한 광주 분원백자와의 연관성을 알려준다. 실제로 양구에서 채집되는 백자, 청화백자 등은 특히 조선후기 분원백자와의 조형적으로 상호관계가 매우 높다.



(그림14 양구 백토)

6.25 이전까지도 요업이 계속되었던 곳으로 조선~근대로 이행하는 시기 우리나라 근대도자 산업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양구 방산의 백자생산역사 600년을 정립하는 이 전시관에서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관요 분원리 청화백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왕실백자를 서민에게도 확대하였던 조선백자의 마지막 꽃, 방산 청화백자 향아리를 중심으로 질 좋은 양구백토가 빚어놓은 하얀 조선백자의 빛과 그 흐름을 펼친다.

(2) 방산자기박물관

1391년에 제작된 이성계 발원 불사리 장엄구 일괄품에 나타난 기록으로 알 수 있듯이 양구지역의 백자 제작은 고려 말인 1391년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를 지나 1975년경까지 진행되었다. 양구지역에서 제작된 이러한 백자 등의 유물을 발굴·연구·관리·전시하여 지역 문화를 재조명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6년 6월 27일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장평리에 방산자기박물관이 개관되었고 2007년 1월 9일에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었다.

전시실 1동에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1년에 1~2회 정도의 기획전시를 진행하여 지역의 백자와 백토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연구사업으로 국립춘천박물관과 연계하여 칠전리 1호 가마터를 발굴하고 보호각을 설치하여, 경기도 광주 지역의 분원민영화 이후 양구지역의 도자 생산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려 말부터 제작되어 온 백자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있다.

8,160㎡의 대지에 양구 지역에서 생산된 백자와 양구지역의 백토로 만들어진 현대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전시실에는 이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다. 현대작가의 작품들은 전통적인 개념과 현대적인 조형원리를 이용한 작품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고려 말 조선 초부터 근대에 제작된 것들이 함께 전시되고 있고, 소장 작품들과 더불어 도침, 갑발 등의 요도구 등이 전시되어 방산 지역의 백자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여말선초 연질백자에서 경질백자로 넘어가는 제작과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 인근에 발굴한 칠전리 1호 가마터는 보호각을 씌워 관람객들의 탐방코스로 활용하고 있다. 칠전리 1호 가마는 경기도 광주 분원이 민영화되고 나서 분원의 사기장들이 백토가 공급되는 양구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하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분원 민영화 이후 자기의 제작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어 중요하다.



(그림15 방산자기박물관)

(3) 운영 프로그램

교육사업으로는 병영문화체험 및 문화원 연계사업, 상설체험교실을 열어 지역의 자기 원료인 백토를 이용하여 원료의 채취와 가공, 가공된 흙으로 성형하는 등 자기 제작의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예강좌는 문화적으로 다소 열악한 주민들이 지역의 원료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용기와 작품 등을 제작함으로써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애郷심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자기 체험장에서는 백토가 도자기 제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은 물론 도예작가들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 제토시설에서는 원토분쇄→미분화→탈철과정→교반→수분제거→반죽 등 제토의 전 과정을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근에 마련된 전통적인 제토시설도 확인할 수 있어 옛날 방식과 현대시설의 비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흙을 이용해 직접 본인의 작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질 높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들어진 작품은 가스가마나 전통가마에서 초벌과 유약 시유한 후 재벌번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체험실에서는 전기가마, 가스가마, 장작가마 등을 갖추고 야외 및 실내 체험을 겸할 수 있는 시설로 70여평의 규모로 만들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흙을 만드는 방법과 성형, 그리고 가마에 직접 구워 자기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기의 전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16 방산자기박물관)

Ⅲ. 결 론

양산 법기리의 창기마을 도요지는 조선시대 16-17 세기경에 여러 가지 도자기를 생산하던 가마터로 마을 뒷산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지금도 사발, 대접, 접시 형태의 파편들이 수 없이 널려 있고 산의 중턱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기를 굽던 여러 개의 가마터의 흔적이 확인 되고 있는데 일본의 이라보 다완(伊羅保茶碗)이라 불리는 것들이 모두 법기리에 있는 창기마을 한 곳에서만 빛을 보았으므로 알려져 있다.

출토 되고 있는 파편들은 회백색의 백자가 대부분이지만 녹색을 띠는 이라보(伊羅保) 계통의 파편들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점토 속에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이라보 계통의 다완이 주문에 의하여 생산 되었던 것으로 추정 하는 이유이다. 때문에 법기리의 창기마을 가마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마터라 할 수 있다. 생산된 도자기는 사발, 대접, 접시 등으로 대부분 굵이 높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오기다완(吳器茶碗) 형태 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백자에는 회색 또는 갈색이 섞여 있고 흙과 유약에도 철분과 같은 잡물이 섞여 있으며 다완의 모습이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구워진 정도도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반 생활에 필요한 백자가 생산되었던 가마터로 추정된다. 오랜 동안 이러한 백자 사발이 구워져 왔기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발견된 파편들은 창기사발로 불리는 근거가 되고 있다.

도요지와 같은 매장문화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파괴되거나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번 파괴되거나 훼손된 문화재는 영원히 복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존과 활용의 방안은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도요지에 대한 보존 가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공감대 형성이다. 도요지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는, 도자 문화의 확산과 도자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

둘째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역 특성과 경관을 잘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요지의 가치를 지역 전체로 확대시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문화제, 마을 시설 등의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 기반시설을 보수,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공미술 설치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욕구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함께 교통, 숙박, 볼거리, 먹거리 등과 같은 주변의 다른 문화적 네트워크와 도요지를 연계시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이 있다.

다섯째, 관련분야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연구도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주민 단체나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유형, 무형의 문화재 보호운동을 확산시키는 것도 도요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여섯째, 인근 도시와의 공통 도자문화 콘텐츠 연계,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광역 도자문화 인프라 구축.

인근의 김해,밀양 지역의 도자기와 차문화를 연계하여 각 지역의 독자적 문화를 존중하고, 공동 된 사안에 대한 협력 체계구축.

도요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기초 조사를 통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역 교육을 통한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지역 특성에 따른 장소, 환경, 경관의 통합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VI. 심포지엄 질의 응답 및 의견

질의 1

백상탁 : 법기리 요지는 임진왜란 이후에 한동안 일본과의 교역을 하면서 국제적인 교류를 하였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융성했던 가마가 왜 사라지게 되었는가?

답 / 신한균 : 1638년 경에 문을 닫게 되는데 쇠퇴한 것이 아니고 부산 왜관 요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했지만 장소만 이전한 것으로 보면 된다.

질의 2

주명기 : 일본에는 그때 건너간 법기도자기들이 매우 많다고 알고 있다.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되고 있는가? 그리고 법기도자기들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답 / 다니 아키라 : 당연히 정확한 것은 추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수량은 1만점 이상이라는 것 정도는 확실하다.

한국에서도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구입을 한다면 좋지만 그 비용이 문제가 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시관이 건립된다면 일본의 수집가들로부터 기증을 받는 것이다.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뜻에 동의할 수집가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질의 3

남경채 : 법기리요지를 통한 앞으로의 문화사업과 관련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 달라.

답 / 신한균 : 문경차사발 축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가 되었다. 하지만 그 명성에 비해서 역사적 근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친인 고신정희 사기장이 우리 전통 사발들을 재현할 당시에 문경의 도자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법기리요지는 차원이 다른 곳이다. 앞서 발표했듯이 변례집요나 일본의 기록들에 그 증거들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살려나가야 할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흥 운대리의 박물관도 마찬가지다. 분청사기를 생산했던 곳은 전국적으로

매우 많다. 하지만 법기리 요지에서 출토되는 사금파리나 일본에 있는 도자기 즉, 이라보, 도도야, 호리미시마 등은 매우 특별한 물건이다. 이라보 같은 경우에는 법기리를 제외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사금파리가 출토된 적이 없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질의 4

윤영석 : 당시 일본인들은 왜 법기리에서 생산된 도자기에 열광하게 되었는가?

답 / 다니 아키라 :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 중에 차노유, 즉 다도가 있다. 형식이 매우 복잡하고 잘 정립되어 있는데 관련 다도구들도 다양하다. 그 중 찻사발은 핵심적인 도구이다. 그리고 다도에는 거기에 걸맞는 정신이 중요하다. 일본 다도의 핵심은 와비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화려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 소박함에 가깝다.

예를 들어 화려한 청자는 다도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차의 빛깔을 방해한다. 법기리에서 생산된 도자기들은 그런 일본의 다도 정신과 맞아 떨어진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

질의 5

김옥규 : 외국인들이 우리 병원에 많이 오는데, 단순히 치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한 관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답 / 장기덕 : 그렇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기념할 만한 축제나 관광코스 개발, 기념관 건립, 기념 사업회 등에 경쟁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발표에서도 보았듯이 도자기만 하더라도 제법 많은 예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 뜻에 충실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금 법기리요지를 보니 그런 의미에서 무척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각을 달리하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니 늦었지만 희망을 보았다.

질의 6

이천효 : 법기리요지에서 출토되는 파편과 옛 왜관의 부산요에서 출토된 파편과의 연관성이나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나?

답 / 다니 아키라 : 파편으로 한정한다면 정확하고 분명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성격은 좀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연구 조사가 진행된다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관의 부산요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법기리도 마찬가지로 길을 가지 말란 법은 없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VII. 주최기관장 양산시장의 반응 및 행사 사진

- 법기리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한류의 원조격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조사면적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양산의 정체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조속하게 관련 사업들을 구상하고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행사사진





VIII. 보고서를 마치며

이번에 양산시가 의뢰한 법기리요지 정비·복원을 위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1. 한국 전통도자의 뿌리를 확인하고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
2. 도요 사적지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찾고 의미를 새김
3. 요지 발굴·복원이나 법기도자 관련 자료관 건립
4. 도자 문화로 바라보는 양산의 매력을 찾기 위한 노력

법기리요지는 17세기 한·일 주요 무역 프로젝트의 현장이었다. 사적100호인 법기도요지는 일본의 주문도자기를 생산했던 곳이다. 한·일 양국이 모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될뿐더러 오히려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학술적 접근을 통해 도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다 분명히 하고, 복원 및 정비를 위한 길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여러 사전 작업들을 말한다. 지표조사구역의 확대 및 철저한 발굴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며 매년 관련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양산 법기리요지의 실체를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 근거가 분명하고 국제적이었던 양산의 도자기 문화를 분명히 하고 또 알려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새겨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자기 문화를 창출하며 또 발전적인 계승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도자역사는 매우 자랑스럽다. 유일무이한 상감청자를 비롯해 파격적인 분청사기, 품격 높은 백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유산이다. 거기에 들어 갈 목록이 남아 있다면 바로 법기도자기이다. 매우 독특한 매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랑스러운 양산의 도자기다. 따라서 양산의 자부심을 키워갈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하는 데도 법기리요지의 상징적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